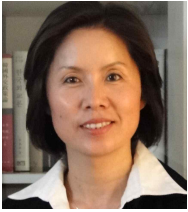


방수옥 통일교육원 초빙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교수)

시진핑 시대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이념과 대한반도 정책

2015. 4

성 명	학 력 및 경 력
<div data-bbox="244 349 432 560"></div> <div data-bbox="217 631 456 725"> <p>방수옥(方秀玉) 1962년생</p> </div>	<p>[학 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경남대 정치학 박사 ○ 중국 동북사범대 정치학과 졸업
	<p>[경 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복단대 국제관계연구원 한국학 부교수(02~현) ○ 중앙대 객원교수 (98~02) ○ 서강대 국제지역 연구소 선임연구원(05~07) ○ 중국 북경대 방문학자(87)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p>[한반도 문제 관련 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한국외교와 중국」 2011년 ○ 「중국외교정책과 한중관계」 2004년 ○ 「조선반도와 국제관계」 2012 ○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p>[주요 강의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 “한국정치와 대외관계” ○ “大國정치와 한중관계”
	<p>[강의 / 대담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시대 중국외교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시진핑 시대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이념과 대한반도 정책

방수옥 (方秀玉)

1. 중국의 국제정세 판단 기준
2. 중국 외교정책의 불변 원칙과 새로운 이념
3. 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
4.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5. 맺음말

1. 중국의 국제정세 판단 기준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뒤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인내와 겸손’ 즉 ‘도광양회’를 강조한 덩샤오핑 시대의 외교기조 대신, 전 세계를 무대로 ‘유소작위’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으로 변화된 자국 국력에 대한 평가에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제정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청화대학(淸華大學) 당대국제관계연구원원장 앤쉐통 교수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 (자국)실력 대비 (세계)변화 흐름을 고려한 국제정세 인식
- ▶ 역사적 시각에서 국제정세 인식
- ▶ 국가이익 시각에서 국제정세 인식
- ▶ 객관적인 변화로부터 외교정책의 효과 인식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는 경직된 외교 전략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창신(創新)적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외교전략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 절대 다수 국가관계의 개선
- ▶ 미국과의 관계 변화
- ▶ 소수 국가들이 연대해(포단정책(抱團政策)) 중국에 대항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 달성 실패

중국의 실제 국력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 2013년 GDP 기준,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위 미국은 16조 8천억 달러, 2위 중국은 9조 2403억 달러다. 큰 이변이 없을 경우 앞으로 10년 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설 것이란 예측도 있다.

중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 국방예산 증폭은 10%로(155조원 규모) 중국의 장기적 GDP 증가 추세에 적합한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방예산 45조원의 3배가 넘는 수치이나 미국 국방예산에 비교한다면 1/4에 해당한다. 최첨단 무기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우주개발 역시 미국과 러시아를 맹추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자국 실력에 기반하여 중국은 새로운 외교 이념(理念)을 추구하고 있다.

2. 중국 외교정책의 불변 원칙과 새로운 이념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 역사는 물론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편견, 오해, 곡해를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최근 세계는 지난 몇 세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권국가 형성이후 국가마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각국은 국력에 맞는 외교노선을 펼치게 된다. 20세기 중국은 동방의 기타 나라들과 같이 서방 열강들의 침략을 당했으며,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국력이 약했으니 당연히 약자로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적 역사는 중국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무력에 의한 영향력 보다 꾸준한 정의의 힘을 추구하게 하였으며 강자보다 약자를 더 배려하게 하였다. 냉전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이 그러했고 현재 추구하는 외교정책도 이선을 넘지 않고 있다. 무력과 압박에 의한 질서보다 약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배려하는 그런 공정한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력 세계2위로 도약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불변 원칙과 새로운 외교 이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중국 외교정책의 불변 원칙

평화공존 5대원칙을 준수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패권적 방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며,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며, 발전을 통해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한다. 5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 ▶ 상호 불가침
- ▶ 상호 내정불간섭
- ▶ 평등호혜
- ▶ 평화공존

(2) 중국의 새로운 외교이념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력에 걸맞는 외교이념을 추진하고자 한다. 즉 경제력을 바탕으로 화어권(話語權)을 행사하고자 하며 책임있는 국가로서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AIIB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질서를 위반하거나 기성세력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일부 국가들이 이를 과대 해석하거나 곡해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장기간 중국은 “대국시관건(大國是關鍵), 주변시수요(周邊是首要), 발전중국가시기출(發展中國家是基礎), 다변시중요무대(多邊是重要舞臺)”라는 외교의 총체적인 포석을 깔았으며 또 이를 준수해 왔다. 냉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대국관계 보다 주변국외교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이념과 책략(策略)을 제시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

- (1) 신흥대국관계(新興大國關係(新興國家關係))
- (2) 친(親), 성(誠), 혜(惠), 용(容) 주변국외교

- (3) 의리관(義利觀)
- (4)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
- (5) 일대일로(一帶一路)

3. 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

평화로운 국제정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중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국내·외적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국내 제약요인과 도전과제

① 중국은 경제대국이지만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노령화 문제와 농촌인구 문제는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②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외국인들이 상해에 처음 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예상했던 중국의 모습과 실제 현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로 약 2시간 거리를 달려 외각을 가면 또 다른 세상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을 보고 중국을 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 ③ 조방(粗放)형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 ④ 비합리적인 산업구조
- ⑤ 자주 창의력 부족
- ⑥ 경제사회발전과 자원환경의 모순
- ⑦ 농업, 농촌과 농민문제

(2) 국외 제약요인과 도전과제

- ① 세계경제발전 요소의 불확실성
- ② 세계 석유가격의 불안정
- ③ 지역충돌과 끊임없는 테러활동

- ④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
- ⑤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위한 자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
- ⑥ 역내 국가들간 영토, 영해 분쟁
- ⑦ 역사인식문제

4.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1) 전반적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우호적 분위기가 우세였으며 평화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양국관계가 더욱 돈독했다고 중국측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2) 냉전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냉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중국은 이념과 정치를 우선시 하여 한반도의 북반부에 위치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구소련의 관계가 영향을 미쳐 북중관계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 문화대혁명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이미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냉전 속에서, 특히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중관계는 적대와 갈등의 관계로 이어졌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간접 교류에 불과하였다.

냉전시기의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판단, 혹은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판단해 학문적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당수의 학자나 일반인들은 냉전시기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새로운 연구들은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중국 화동사범대학 종신(終身)교수인 썬즈화 선생의 연구결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3) 탈냉전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1992년의 한중 수교, 국제적 이슈인 북핵 문제 및 3차례 진행된 핵실험, 그리고 중국의 국력상승에 따른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외교 이념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탈냉전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시대에 들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념(理念)이 변한 것인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틀, 즉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정책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한국과의 수교 후, 중국은 한반도에 ‘북남병중(北南并重)’ 정책을 펴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북한의 3차례의 핵실험에 따라 곤경에 처해있다. 핵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전의 관례를 타파하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너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 있다. 북한이나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모두 중요한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민족과 국가가 둘로 분단된 상황에서, 냉전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변도 정책을 폈지만, 가능한 한 양측과 모두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중국은 쉽게 옛 친구를 내치치 않을 것이다. 단지 과거와 다른 것은, 의리관(義利觀)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3차 북핵실험은 국제규범을 벗어난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

고 있다. 따라서 핵실험과 같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가 아닌 국제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이나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할 것이다. 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다.

한중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여 년간 한중관계는 급속히 발전했다. 경제 수치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나 미국문제가 개입될 경우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양측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나, 최근에 끊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등이 좋은 사례이다. 그만큼 남북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미중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관련 이슈들이 양국관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가?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관련국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한반도 남북한 당사자의 입장이 더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 내의 간극 줄이기.
2. 남북한 양측의 공통된 인식 창출.
3.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중요성.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꾸준한 소통 없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보다 서로에게 이로운 경제문제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해진 해법은 없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또 실천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신뢰를 쌓는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체와 정신이 모두 성장하게 된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경계(境界)라고 한다. 상이한 층차의 경계(境界)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

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국가나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도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 통일의 꿈을 잃지 않을 것이며, 꾸준히 문제를 풀어간다면 때가 되었을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같은 비운을 겪은 바 있고 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 단, 역사적 요인으로 현재 동아시아 문제에 미국이 상당부분 개입해 있고 중일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입장을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정확하게 상대방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여 자국의 이익은 물론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5. 맺음말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확적의리관(正确的义利观), 의리병거(义利并举), 이의위선(以义为先)”이라는 원칙으로 국제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중국은 민족부흥의 꿈을 실현함에 있어서 “정의”와 “신의” 두 측면에서 미국을 초월(超越)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의”란 국제사회와의 충돌에서 약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며, “신의”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전략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공평, 정의, 문명”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건설은 어느 일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 공동의 몫이다. 더 나은 세상과 문명을 창출하기 위한 한·중간의 노력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